

#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고은 시인을 만나다

이번 초대석에서는  
2007년도 1학기부터 관악모듬강좌를 맡게 된  
고은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모듬강좌 - 우리들의 안과 밖’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강조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모듬은 각자의 것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의 마당에 모인다는 뜻입니다. 즉 한 분야의 전공 시간이 아닌 보편적인 시야를 여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수업은 ‘자아’, ‘아시아’, ‘문학’ 등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전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식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관악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공급하고 싶기 보다는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전공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수가 아니라 그들에게 친구로서 다가가 다양한 분야에 눈을 뜰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대화에 익숙해지지 않아 매주 강의를 소화하기가 조금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이지만 그 한 번의 시간을 위해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합니다. 분명히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젊은이들의 싱그러운 눈빛 앞에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Q**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요즘의 학생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요즘의 학생들은 시험공부를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를 떼면 시험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식을 탐구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는 해박하더라도 다른 분야에는 무지몽매합니다. 예전 과거 시험 때에 수험자들이 제출했던 과시(科詩)는 아무리 그 것이 좋은 시라 할지라도 좋게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시를 위한 시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생들의 공부도 시험을 위한 공부이기에 좋게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삶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육화시키는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머릿속 기억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위를 만드는 요소로서의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전공 분야 이외에 다른 학과의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다른 학과 공부를 통해서 보편적인 가치를 터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후에야 전공 지식이 빛을 낼 수 있을 것이에요.

**Q**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양’이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양’을 쌓기 위해 대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교양이란 인간의 품위에 대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양의 부족하다는 것은 인간 정신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양을 쌓아야 한다고 봐요.

교양을 쌓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책의 동지가 되는 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식을 섭취하는 도구로서의 책이 아니라 나와 뜻을 함께하는 친구로서의 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책에게 말을 걸고, 책에 의미를 제기하고, 책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니터 앞의 전자책이 아니라 활자책의 비덕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책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없어져버립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서 클릭 하나로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 전자책입니다. 활자 책에 담겨진 지식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이라면 전자책에 담겨진 지식은 그냥 지나가버리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책을 읽을 때에는 일일이 도서관에서 어렵게 책을 찾아가 만나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책을 찾고 일일이 페이지를 넘겨가며 책을 읽어야 합니다. 힘들여 책을 읽은 만큼 책도 나에게 심오한 지식을 줍니다. 그러나 전자책은 나와 손쉽게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만큼 나도 가벼운 지식만을 얻을 뿐입니다.

**Q**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교양교육 및 기초교육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평생 교육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대학 안에서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하면서도 동시에 대학 밖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합니다. 예전의 대학생들은 단지 대학 안에서 지식을 쌓았다면 자연스럽게 대학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무수한 짐을 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짐을 질 학생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때로는 교양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교양은 피할 수 없는 자아 완성의 영양소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경계가 바로 교양입니다. 그렇기에 교양을 쌓아야합니다. 사치처럼 보이지만 교양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 운명이거든요.

**Q**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문학의 길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A** 나는 문학 말고는 할 일이 없거든요. 시는 내 존재 이유이지요. 문학의 힘을 허황하게 믿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의 힘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문학은 세상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처와 어둠, 그리고 세상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문학의 임무일 것입니다. 사회의 이쁨을 감싸 안고 그리고 사람들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시에 대한 관심도 높고 시집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A**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시를 많이 만드는 지식인 사회였습니다. 과거 시험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얼마나 시를 잘 짓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까 과시가 값지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과거 시험에서 시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시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고 학문을 할 때에도 시를 제일 먼저 배우곤 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에도 시는 우리에게 자아를 탐구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아를 잊지 않도록 해준 것이 시예요. 70년대 이후로도 반민주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시가 사회 모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시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높지요.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사람들이 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Q 요즘은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이는 문학에게도 예외가 아닌데요 문학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세상이 지금 삭막한 경쟁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인문학이 설 자리를 잃고 약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물론 인문학을 그동안 담당하고 있었던 인문주체의 책임도 있습니다. 인문 주체들은 자신들이 해온 일이 현실과 얼마나 관계를 맺었는가라는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인문학의 껍질에 갇혀 그저 그렇게 살다보니 이렇게 변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학의 위기라는 말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가 가깝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문학에 가치가 없다면 죽어도 됩니다. 아니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의미가 부여된 모든 가치는 다시 펼쳐 일어날 힘을 내재하고 있고 인문학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인문학처럼 아름다운 세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 질문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Q 학생들이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양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대학에 하나의 문예부흥운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은 문화를 익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문화를 낳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 서울대는 서울대라는 학벌만 만연하고 정작 학문실현의 영예가 드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부터가 문예부흥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만드시 책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축제로서의 문학이 필요합니다. 시낭독회와 같은 축제가 빈번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클리대에 가보았을 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여는 문학 축제를 보며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교수보다 학생 스스로가 그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Q 끝으로 요즘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첫째로 경쟁을 넘어서라는 부락을 조심스레 하고 싶습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경쟁의 도구로 끝나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경쟁적인 요소 말고도 우리가 살아야 할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경쟁을 넘어서 다른 세계까지 지켜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다른 나라 대학생들을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대학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깨야 합니다.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타 대학과의 관계 말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언어를 소통하는 다른 문화와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타자는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타자를 보면 나의 얼굴이 생깁니다. 나를 반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문화를 자주 접해야 합니다.

● 정리 : 이승호 / 사진 : 이정우